

<1> **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개요**

□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의 정의 및 목적

- 안과감염병 표본감시는 안과 감염병의 발생추이를 관찰하고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안과학회, 대한안과의사회,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하는 감시체계
- 안과감염병 표본감시 목적
 - 안과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교육, 홍보 등을 통한 전파 확산 방지
 - 안과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

□ 표본감시 대상 기관 : 전국 안과 80개 기관(참여율 약 83%)

□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

- 유행성각결막염, 급성출혈성결막염

□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¹⁾(임상적 진단에 의해 신고)

○ 유행성각결막염

-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두가지 기준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
 - ① 각막 상피하 점상 혼탁
 - ② 분비물, 안통, 안검부종이나 압통이 있는 이개전림프절병증

○ 급성출혈성결막염

-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
 - ① 결막하출혈
 - ② 분비물, 안통, 안검부종이나 압통이 있는 이개전림프절병증

□ 신고 시기

○ 주 1회(매주 화요일)

-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유행성각결막염,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현황을 신고서식에 기입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

<2>

1)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상적 사례정의를 마련함

2012년 12월 현재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발생 통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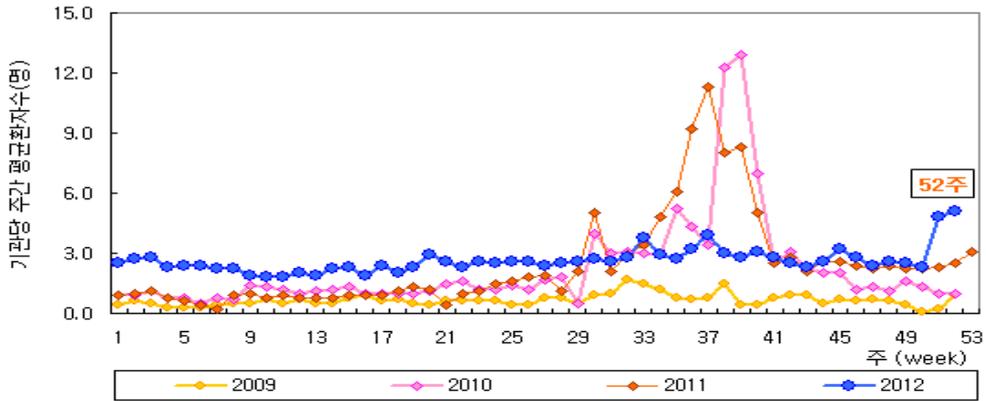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1-52주 연도별 급성출혈성결막염 발생 추이 (2009~20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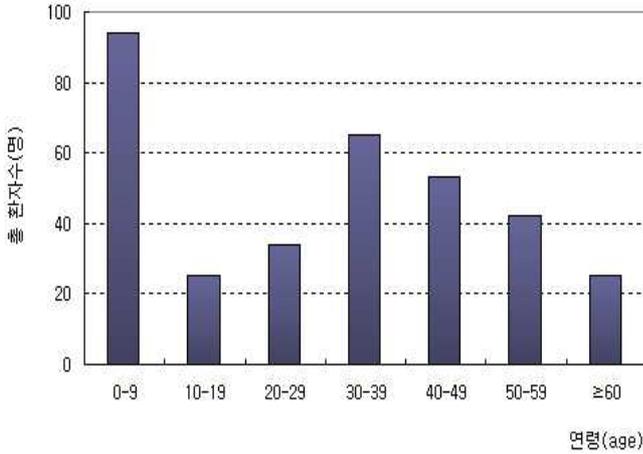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52주차 급성출혈성결막염 연령별 발생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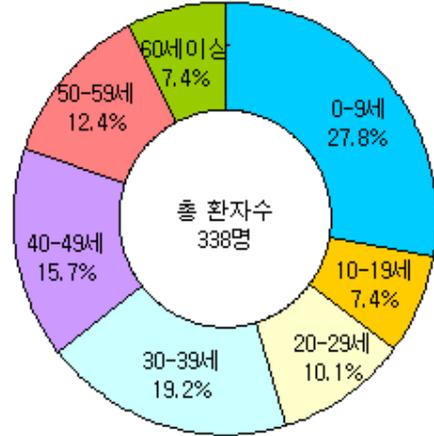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52주차 급성출혈성결막염 연령별 발생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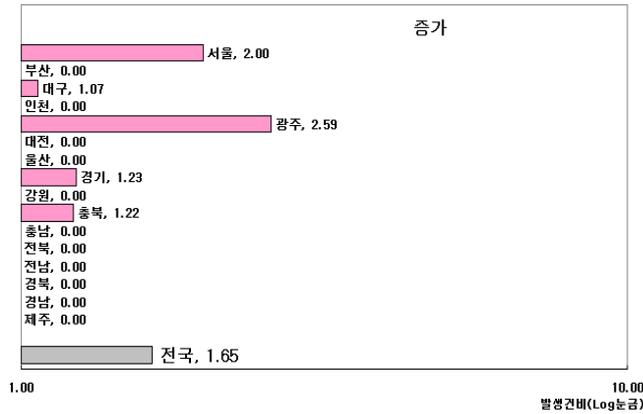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52주차 급성출혈성결막염 지역별 증감비 (이전 4주 환자평균 기준 증감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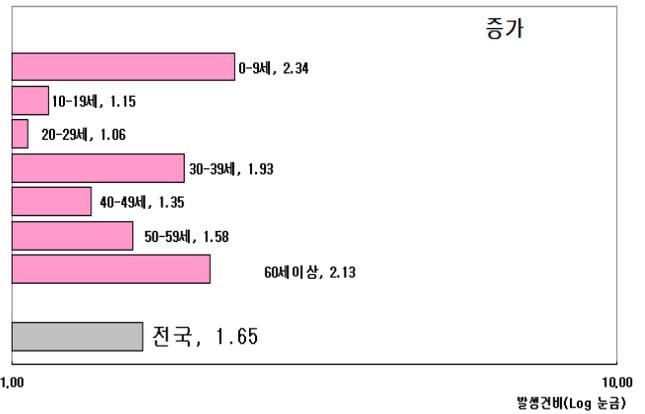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52주차 급성출혈성결막염 연령별 증감비 (이전 4주 환자평균 기준 증감비)

급성출혈성결막염 대상자별 예방 수칙

□ 개인

-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한다.
- 손으로 얼굴,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(컵 등)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.
- 눈병 유행 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는 피하고, 특히 수영장 출입을 삼간다.
- 눈에 부종, 충혈,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□ 환자

- 증상완화 및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안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.
- 수건이나 소지품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.
- 개인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500ppm농도의 살균제(차아염소산나트륨 등)에 10분간 소독한 후 사용한다.
- 눈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며,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.
- 환자는 전염기간(약 2주간) 동안에 놀이방, 유치원 및 학교 등은 쉬고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.

□ 학교 및 공동 시설

- 질병의 특성(높은 전염력 등)에 대하여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.
- 환자 또는 의사 증세가 있는 사람은 등교를 피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, 수건 등의 공동사용을 피한다.
- 개인용품은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500ppm농도의 살균제(차아염소산나트륨)에 10분간 소독한 후 사용한다.
- 가급적 끓일 수 있는 것은 끓여 소독하고, 공동물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(500ppm 이상의 농도)를 이용하여 닦는다.

<4>

급성출혈성결막염의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

구분	급성출혈성결막염(AHC)
병원체	Picornaviruses속의 enterovirus 70형 또는 Coxsachievirus A24var 형
발생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약 5~10년 주기로 유행 ▪ 여름철에 주로 발생
주요 증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갑작스러운 양안의 출혈, 동통, 이물감, 소양감, 눈부심, 눈물, 안검부종, 결막부종, 콧바퀴앞 림프절 종창이 있을 수 있음 ▪ 결막하 출혈반이 70~90%에서 발생, 결막하 출혈은 7~12일에 걸쳐 점차 흡수됨
전염력	증상발생 후 적어도 4일간 전염력이 있음
양상	
치료	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는 없으며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을 점안할 수 있음